

#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 박차 ‘찾아가는 기업 설명회’ 개최

## 시, 상생협의회서 2024년 사업 추진 위한 안건 승인

익산시가 올해 전복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 내용을 확정하고 진행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전복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복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상생협의회는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추진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새롭게 위촉된 상생협의회 위원과 실무위원회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신규 지원사업인 수요 맞춤형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 주관기관 위임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등 총 4가지 안건

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은 올해 참여기업인 하림산업 및 하림푸드의 약 1,100억 원 투자와 150여 명의 신규고용을 목표로 한다.

또한 농산물 수급 사업 확대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공동마케팅 추진체계 구축,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형 일자리는 노·농·사·민·정의 합의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상생협의회에서 승인된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는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한 심의, 조정, 협의, 의결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지역 노·농·사·민·정을 대표하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 대상자 모집

군산시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추천 대상자 모집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 설명회를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추천제한 4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E-2))들이 한국어 능력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군산시의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 고용기업 인사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 추천제도 소개 및 신청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접수와 컨설팅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비자 전환 추천제도에 광역 지자체 추천권이 시행됨에 따라 전북자치도 추천을 통해 전환 접수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환요건 접수 300점 만점에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 시 가점을 희망하는 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이재춘기자)

설명회 전 군산시는 사전에 관계기업체 180여 곳을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본국으로 출국 없이 계속해 근무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해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이 기대된다.

이현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돼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외국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5월중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 하반기에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방세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추진... 금융거래 제한

### 군산시,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 실시로 강력 대응

군산시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체 정리의 일환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공공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등록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차례 납부촉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체납정보가 (사)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이자율 상승 및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공공정보 등록과 함께 관허사업의 제한도 들어간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르면 과세관청

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요청 할 수 있다.

군산시가 밝힌 이번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726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원에 이른다. 일단 군산시는 행정제재에 앞서 대상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납세 상담 실시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건강한 유채 기름 공급단지 조성 박차

익산시가 유채 국내 육성 품종 보급 및 가공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3일 유채유 생산단지 조성사업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연구회 회원 농업인 상담소장,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유채유생산연구회에서 재배하고 있는 오산번 시범사업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채 품종 특성 설명과 재배·관리 추진체계 발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유채 재배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유채는 대부분이 경관용이다. 최근 수입 식용유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유채 기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용유 생산용 유채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국내산 저온 압착 유채 기름에는 식물성스테롤을 비롯해 토코페롤, 카로티노이드 같은 기능성 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다. 활성 산소종 감소와 지방 세포 분화 억



제 등 항산화와 항노화, 항비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익산시는 경관용으로 재배되는 유채를 기름으로 가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익산 유채유 생산연구회를 조직했다.

또한 올해 12ha의 유채유 생산단지를 조성해 기름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생산단지에서 재배된 유채를 6월 중순에 수확할 예정이며, 저온 압착 방식으로 생산된 유채 기름을 2025년부터 익산 지역 학교급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기 아동 청소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유채 재배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읍면동장 책임제, 복지 사각지대 예방 안전망 구축

익산시가 '읍면동장 책임제'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는 2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책임제'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읍면동장 책임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선 현장의 읍면동장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행기는 정책이다.

각 지역 읍·면·동장이 사회보장시스템과 동네 인적 안전망 등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를 발굴해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4,200여 가구를 방문해 기초수급·차상위 등 공적급여, 긴급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등 40여 건의 공적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복지관, 로타리클럽, 자원봉사 등 다양한 민간자원과 협력해 9,000여 건의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며 복지서비스 제공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읍면동장 책임제 확대를 위해 정현을 익산시장은 4월 송학동에 거주하는 대상 가구를 방문해 고충을 듣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기도 했다.

익산시는 읍면동장 책임제를 통해 발굴된 복지대상자가 식사 문제만큼은 소외되지 않도록 다이용음 나눔공간과 다이용음 배치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에서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사골국, 떡국, 만두 등 식재료를 지원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제1대 청소년의회 청소년 시의원 모집

익산시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

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참여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제1대 익산시청소년의회의 의원 2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체험하면서 민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게 돕는다. 또한 수시·정기 회의를 개최해 청소년 정책·사업·예산편성·입법제안·의견제시 등 주도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하게 된다.

익산시 14~19세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기관·단체·시설·학교장 추천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30일까지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누리집에서 서식을 받은 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읍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체계 수립

군산시가 2024년도부터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성면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를 실시함으로써 읍면지역 문전수거 단계적 실시를 최종 마무리했다.

문전수거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함을 꽂아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집집마다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읍면지역은 기존 매립 또는 거점수거 방식에서 해당 수거체제로 변경됐다.

군산시는 그간 문전수거 체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2022년도 옥산, 성산, 나포, 2023년도 옥구, 회현, 옥서, 금년에는 나머지 지역 실시를 통해 최종 마무리 짓게 됨으로써, 옥도면을 제외한 전 지역 문전수거 체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군산시는 문전수거 체계 정착을 위해 제반 업무 등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생활 만족도 증대, 악취 및 불법투기 근절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

